

[리빙]

가을, 집안 꾸미기 : 스티커 벽지

안방·거실·서재·유리창·현관문 ...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요즘, 뭔가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가구를 옮기거나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질 않는다. 인테리어를 확 바꾸자니 얇은 지갑이 원망스럽고, 그냥 있으려나 오랜만에 찾아온 가을에게 민망하다. 벽지를 교체한다면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가 바뀔 텐데, 도배 작업은 인테리어 만큼이나 번거롭다.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작업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자. 데코레이션용 스티커 벽지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매일 보는 같은 벽의 식상함을 없앨 수 있는데다 시공이랄 것도 없는 쉬운 작업 과정 때문이다.

우리집은 디자인 마법에 걸렸어요

주부의 미적 감각은 플러스 알파의 요소. 원하는 모양의 스티커를 원하는 부위에 맘대로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발빠른 주부 블로거들은 이미 '스티커 벽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다. 스티커 벽지 수입·판매업체인 잉글리시홈 김은진 이사에게 스티커 벽지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스티지와는 달라요

흔히 알고 있는 스티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스티커 벽지는 그야말로 문양만을 스티커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스티커 벽지는 말바탕지와 보호 필름으로 이중 커버가 돼 있어 쉽게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다. 반면 스티지는 보호필름을 별도로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스티지는 종이 벽지나 일부 실크 벽지에 붙인 후 때 어릴 때 벽지가 손상되거나 가구에 흔적을 남기지만, 스티커 벽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시공 후 싫증이 났을 때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가 수월하다. 판박이를 하듯 탈부착이 쉬운 것이 장점이다. 광택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스티지가 거의 무광택에 가깝다면, 스티커 벽지는 고급 가구나 전자제품의 표면처럼 하이그로시한 느낌의 광택이 난다. 게다가 스티지가 바탕의 색과 혼합되는 것과 달리 스티커 벽지는 바탕 무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제품 고유의 색상을 선명하게 연출할 수 있다.

시공은 어디에 어떻게

벽지를 바른 벽이나 페인트칠을 한 벽, 타일 소재의 벽, 원목 등 바탕 소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식할 수 있다. 울퉁불퉁한 실크 벽지는 폭이 좁은 제품을 붙일 때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방, 거실, 아이 방, 서재 등 공간의 분위기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디자인을 고르는 재미는 덩이다. 가전제품이나 유리창, 현

관문 또는 방문, 액자 등도 스티커 벽지의 훌륭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붙이기 전 마른 걸레로 표면의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리창에 붙일 때는 기포가 생기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생각하고 스카치 테이프 등을 이용해 가접착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한번 시공한 뒤에는 흡지 없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거 공간 뿐 아니라 사무실이나 병원, 학교 등에도 스티커 벽지를 이용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 여러 패턴을 이용해 조금 복잡한 디자인을 스스로 창조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다. 김 이사는 "한 벽을 스티커 벽지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벽 한 쪽에서 시작해 중간쯤에서 끝나게 레이아웃을 짜는 여백의미를 살리면 더 세련돼 보인다"고 조언했다.

어디서 얼마에 구입하나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영국 스트립업스 제품과 국산 에코플라스틱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잉글리시홈'(www.english-home.co.kr), 재미난 발상의 스티커 벽지들이 인상적인 프랑스 사이트 '도메스틱'(www.domestic.fr), 미국의 블리스 제품을 판매하는 '모어인몰'(www.moreinmoll.com), 이탈리아 데코사의 집착식 듀얼 시트를 판매하는 '데코르'(www.homedecor.co.kr), 원하는 모양도 제작 가능한 '아리'(www.ali.co.kr), 영화와 광고 등 현장에서 미술작업을 했던 아트 디렉터가 운영하는 '휴플레인'(www.hueplane.co.kr) 등이 있다.

국산 스티지로 만든 제품의 경우 한 장에 1천원짜리부터 구비돼 있고, 수입 제품은 큰 패턴이 3~4조각, 작은 패턴이 20~30조각으로 돼 있으며 가격은 6만~7만원대로 다양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 제공=잉글리시홈)



최근 적은 비용과 간단한 작업으로 실내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데코레이션용 스티커 벽지가 알뜰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페인트처럼 쓰~썩, 벽에 색 입혀 보세요

곰팡이 발생 막는 친환경 '액체벽지' 인기

반쯤을 주고 벽지를 꼭 펴서 뒤집은 뒤, 붓으로 짙은 풀을 적당히 발라 벽에 탁 붙인다. 그리고 빗자루를 이용해 벽지의 위에서 아래로 빈틈이 없도록 쓸어내린다. 이같은 동작이 최소한 20~30회는 반복해야 방의 도배 작업은 끝난다. 작업의 끝은 한없이 기쁘지만, 다음 날 찾아오는 근육의 뭉침은 육체노동의 고통을 확인시켜준다.

페인트로 벽에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시공이 끝나는 벽지가 있어 화제다. 수성계열로 된 액체벽지를 벽에 바르면 그것으로 벽지가 완성된다.

무늬를 넣고 싶다면 롤러를 이용해 덧칠해주면 끝이다. 같은 패턴의 무늬들이 벽에 입혀져 마치 종이 벽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시공비는 1㎡ 당 1만1천500원 가량. 일반 벽지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내구성이 강한 장점이 있다.

벽에 색칠하는 방식이어서 페인트를 연상시켜 몸에 해롭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접어도 된다. 물이나 세제로 청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곰팡이 발생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다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시멘트 벽은 물론 목재나 유리, 아크릴, 금속, 타일 등 어떤 재료에도 잘 입혀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액체벽지를 생산하는 월페이스 김중선 광주지사장은 "새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수은, 납 등이 없는 친환경 소재에서 가족 건강을 해칠 위험이 없다"며 "원적외선을 방출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를 잡을 수 있고 방열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바지속의 마법~

땀먹는 "루스터팬츠"

루스터팬츠 숨쉬는 섬유와 분리통풍 설계가 제공하는 신선한 착용감!!!

올 여름은 역사상 가장 무더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7 기상학술 심포지움에서 전망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가속화 되고 엘니뇨 현상이 극성을 부리면 해수면과 지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온 지구촌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다.

회사원 조모(36세 남)씨는 하루 10시간 정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벌써부터 올 여름에 흘린 땀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얼굴의 땀은 닦아 낼 수 있지만, 가슴과 등에서 솟아나는 땀은 허리를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 셔타구니가 온몸 땀으로 번박이 되고 끈적끈적해 지는데 생각만 해도 기분 이 찜찜하다. 작은 여름엔 잠시엔 온전하고 출장 갔다 왔더니 셔타구니 주변이 습해지고 가렵다가 습진이 생겨 병원에까지 갔으나 치료가 오래 걸려 고생이 많았다.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지만 하도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 심부 반 뛰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 바지가랑이 가 축축히 젖고 갑자기 아랫도리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바지 속의 신비, 땀 먹는 "루스터 팬츠 2호"가 출시되어 이런 걱정들을 말끔히 없애준다. 분리통풍(分離通風)의 설계와 숨 쉬는 이형단면(異形斷面)섬유의 흡수속건(吸水速乾)기능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안일은 듯 편안한 착용감이 신선하다.

"루스터 2호"의 특징은 남근과 고환의 요묘한 돌출과 굴곡을 인체적으로 감싼 튜브와 주머니가 셔타구니 피부에서 땀방울을 말끔히 흡수건조 시키는 동시에 공기를 공급한다는 점이다. 시원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정자 생성이 활발해지고 남성에 힘이 솟아 신감이 살아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잔노 흡수력과 통풍구를 적용해 상쾌감이 지속되며 위생성도 탁월하다.

제품 원단도 최고급만을 선택했다. Vente x사의 숨쉬는 섬유 DRY-ZONE은 면보다 3-4배 빨리 땀을 흡수하고 통풍이 잘돼 적절한 피부상태를 유지시킨다. DRY-ZONE은 단 1초에 땀을 밖으로 배출, 건조시키는 수분감응의 흡수속건(吸水速乾) 기능 뿐만 아니라 4방향 고신축성(4-way Stretch)을 겸비한 스마트 섬유 원단이다.

소변은 바지지퍼를 내리고 튜브를 꺼낸 뒤 튜브 끝을 걸지 손가락으로 약간 확장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루스터 팬츠는 2000년 한국에서, 2005년 미국과 일본에서, 2006년에는 멕시코와 유럽 7개국에서 발명특허권을 획득하여 그 특출한 기능성을 인정 받고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아신 천 제품이다

기능대비 가격도 저렴한 부담이 적다. 팬츠 1장 가격은 18,000원이며 3장들이 한 세트는 44,000원에 판매한다. 회사 관계자는 "특출한 기능성, 신선한 착용감, 뛰어난 디자인으로 전 세계 남성 남성 속옷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을 확신하며, 덧 붙여, 순수 국내생산 섬유로 연구개발,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인터넷구매: www.roosterpanis.com
문의전화: 1577-2787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 상가 2층

매월 60평

매대가 21,500(용지5,600/시설.접기포함)

전대용문 70평 노래방(도유미 없는 청정지역)

보증금6,000/월200/시설권리금12,000 숭18,000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틀 11개, 소방인정필증)
영업시간 19시간(오전11시~새벽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광주대학생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 도유미 없는 청정지역
월수익 900만원 이상, 방학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매출	분류	66만원
월 영업일	30일	30일
월 매출 합계	1,980	
인건비	알바(3명)	200
	점주인건비	150
광고비	39	
영업의 비용	70	
전기료 및 공과금	1개월	80
임대료	1개월	200
유료수 및 원가	매출의 약15%	297
월 지출 합계	1,036	
순이익금	944	
점주인건비 포함 이익금	1,094만원	

상가 전용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 仲介 士 事務所
부동산 공신력이 있습니다. 내눈은실매는 최소한 8개월전에 연차부실시요. 입찰법 표본자이즈 정보개발팀 상가팀의 환영 할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연니후로 스텝스 빌)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육선코리아

(법원경매매입장담)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육선코리아 무로상담 권고받어, 영도 유정리내에서 및 성림어부, 내물기예상부서 애고물기, 선순회기, 기차, 기장원리인 등 차질화회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소환선시 미 X0.3025)

▶근리시실(근리시실) 상담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	74000	소매/월간/면적(㎡) 40평	1920000